
이슈브리프

2016. 12. 1

I. 2016 美 대선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투표하였는가? / 1

II. 美 대선 후 미국 국내정치 변화 전망 / 7

〈이슈브리프〉는 각종 현안이슈에 대한 분석과 전망, 대응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의정활동에 참고·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새누리당과 여의도연구원의 공식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2016 美 대선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투표하였는가?

브루킹스연구소와 美시민운동 연구단체인 CIRCLE¹⁾이 밀레니얼 세대의 선거 성향을 분석한 결과 중도적 성향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음. 힐러리는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층의 표심을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였고, 반면 트럼프는 강력한 미국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며 숨어있는 젊은 보수층의 투표율을 이끌어냄. 이에 적극적인 지지층을 파악하고 선거 홍보에 대한 파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젊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동기 부여, 정치권과 유권자 간의 신뢰감 형성, 그리고 젊은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 선점 및 청년유권자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 마련 등이 절실함.

1. 밀레니얼(Millennials) 세대?

-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일컬으며,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들 세대를 가리켜 ‘미 제너레이션(Me Generation)’이라고도 함
- 기득권과 정치권에 대한 불신 및 과거세대보다 강한 자기愛 성향을 보이며, 정치와 선거에 대해 무관심하고 탈정치화·탈종교화가 뚜렷함
- 소셜미디어를 이끌어나가는 소셜세대로서 美 스마트폰 인구의 85%가 밀레니얼 세대이며, 이들 중 약 50%가 SNS를 통해 정부 및 정치 관련 소식을 접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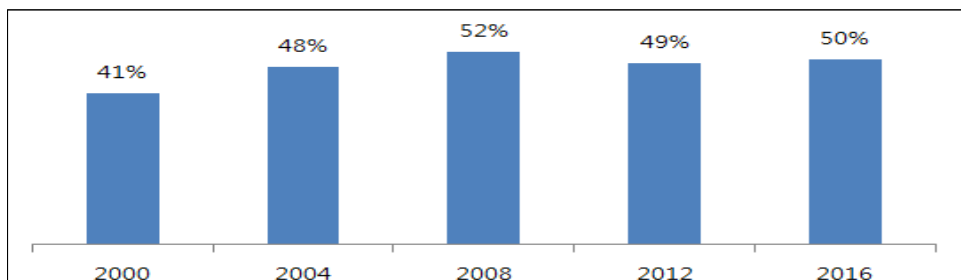
1) Center for Information and Research on Civic Learning and Engagement

- 약 7,500만명의 밀레니얼 세대는 2016년 美대선 유권자의 30% 이상을 점유, 대선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한 표심으로 자리

2. 밀레니얼 세대 대선 투표율

- 제45대 美대선의 밀레니얼 세대 투표율은 지난 44대 대선의 49%와 비슷한 수준인 50% 유지
- 밀레니얼 세대는 대체로 민주당을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고, 민주당 힐러리 후보가 55%의 득표율을 얻어 트럼프의 37%보다 앞섬
- 힐러리의 득표비율차는 트럼프보다 18%p 앞섰지만, 밀레니얼 세대의 선거 참여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함
 -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의 비율이 지난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오바마의 득표율 60%에 비해 소폭 하락
 -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열세했던 트럼프의 득표율은 지난 대선 공화당 롬니 후보의 37%와 같은 수준 유지

[그림] 18-29세 유권자 비율



출처 : CIRCLE

3. 밀레니얼 세대의 후보자 지지 성향

○ ▲대졸 非백인, ▲고졸 이하 非백인으로 등으로 구성된 다수의 밀레니얼 유권자 여론은 클린턴 후보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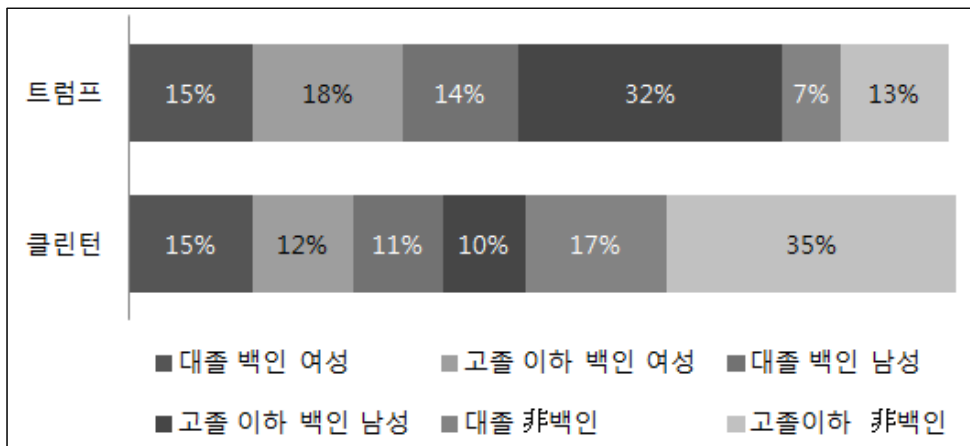
- 밀레니얼 세대 中, 흑인 67%와 라틴계 36%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두려움을 나타냈고, 이는 클린턴을 지지하게 만든 큰 원동력이 됨

※ 지난 대선에서 밀레니얼 세대는 진보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내며, 민주당 오바마 후보의 대선승리를 이끌어낸 주요 지지층이었음

○ 트럼프를 지지하는 젊은 유권자 기반은 백인이며, 주요 지지층은 ▲대졸 백인 남성, ▲고졸 이하 백인 남성, ▲고졸 이하 백인 여성

- 백인남성의 46%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백인여성의 33%가 트럼프를 지지하여 트럼프에 대한 남녀 지지도는 확연한 차이를 보임

[그림] 젊은층의 인종, 성별, 교육수준 구성(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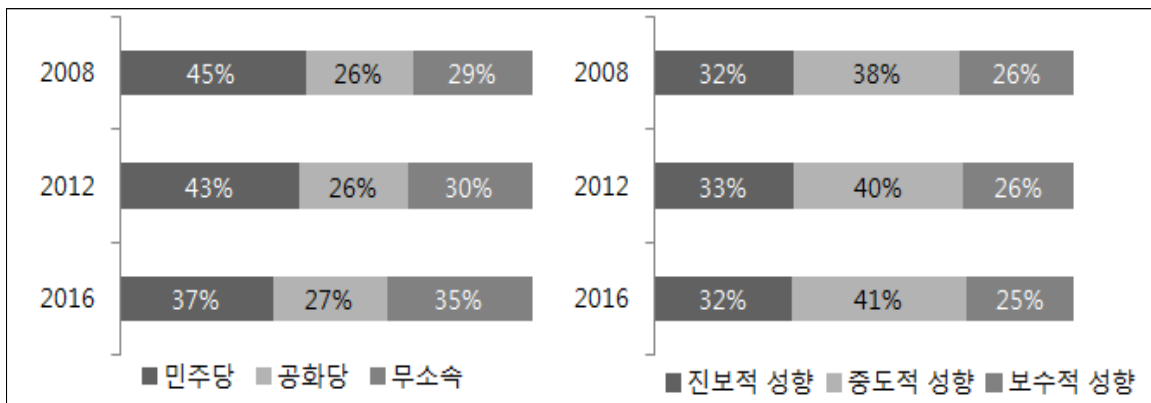
출처 : CIRCLE

4. 밀레니얼 세대의 정치적 성향 3大 특징

① 중도적 성향을 가진 밀레니얼 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진보적 성향을 가진 젊은층의 비율이 보수적 성향을 가진 젊은층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정치에 관심없는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나면서, 젊은층의 민주당 지지도와 득표율 모두 하락하는 추세

[그림] 젊은층의 정당 지지도와 정치적 이념, 2008-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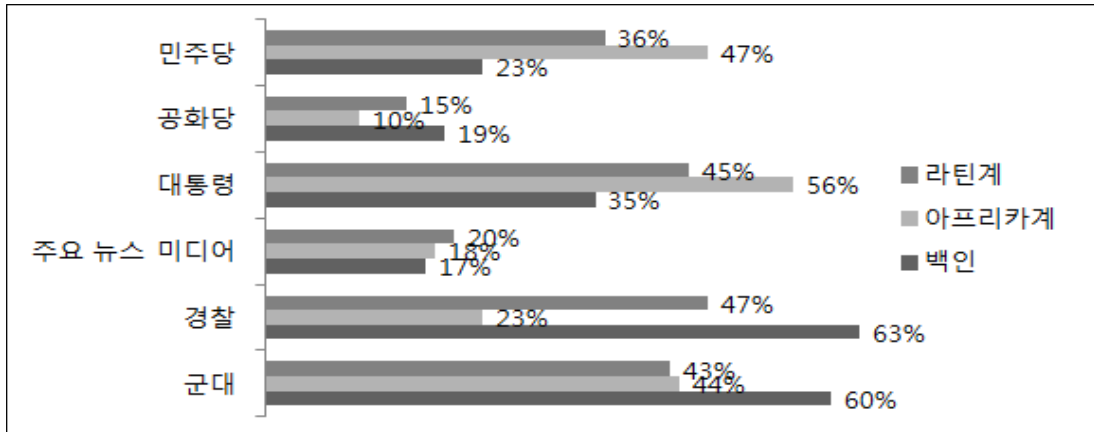


출처 : CIRCLE

② 특정 정당과의 연대보다 정치 이슈별로 결집하는 성향이 두드러짐

- 다양한 인종이 늘어나면서 다수의 소집단으로 형성된 밀레니얼 세대는 특정 이슈에 관심을 갖는 그룹을 겨냥한 개별 접근 선거전략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며 선거기간 동안 두 후보 간의 이슈 선점 경쟁이 치열했음
- 밀레니얼 세대 中 백인은 경찰과 군대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트럼프는 이들을 공략한 '강한 미국' 청사진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젊은 보수층의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냄

[그림] 인종과 민족별 밀레니얼 세대 신뢰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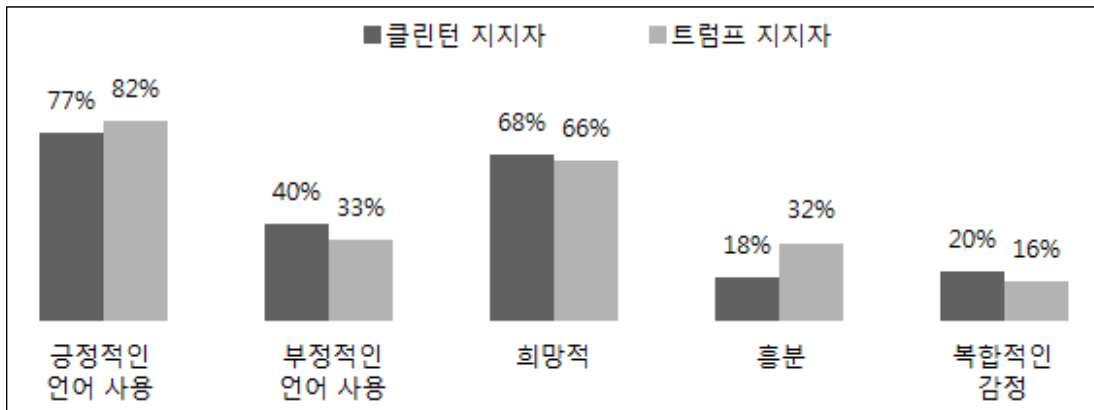


출처 : CIRCLE

③ 지지후보에 대한 ‘흥분’의 감정이 밀레니얼 세대의 투표 참여 유도

- 지지후보에 대한 ‘흥분’의 감정은 상대측 후보의 문제점에 대한 분노로 이어져,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요소로 작용
- 젊은 트럼프 지지자들 中 32%가 흥분의 감정을 나타냈고, 트럼프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며 ‘흥분’의 감정을 표심으로 이어감

[그림] 클린턴과 트럼프에 대한 젊은 지지자들의 감정 종류



출처: Tisch College's CIRCLE 2016 Pre-election poll

5. 시사점

- 정치에 대한 관심이 이전 세대에 비해 적고 자기애가 강한 젊은층을 공략하기 위해서, 젊은 유권자들과의 눈높이를 고려하고 그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동기 부여 필요
- 정치인과 기득권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해소하여 정치적 성향이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과 유권자 간의 신뢰감 형성
- 정당을 지지하는 젊은 세대의 성향을 파악하여 젊은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이슈 선점 및 청년유권자를 위한 맞춤형 공약 필요

[작성: 김초원 연구원 ☎ 02-369-7939]

II. 美 대선 후 미국 국내정치 변화 전망¹⁾

2016 미 대선에서 감정적인 반지성주의 현상이 대두하고 성난 백인층이 판세를 주도한 선거 양상을 보였음. 이에 따라 향후 트럼프행정부下 국내 정책은 분노와 불만이 팽배한 미국 대중의 성난 분위기를 위무하는데 초점을 맞춘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할 것임. 대외경제정책 면에서는 트럼프의 보호 무역주의와 전통적인 공화당의 자유무역주의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미국내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은 지속 심화되어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던 ‘미국식 예외주의’가 붕괴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1. 포퓰리즘의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 우선

- 트럼프는 분노와 불만이 팽배한 미국 대중의 분위기를 위무하는데 초점을 맞춘 국내용 정책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하는데 박차를 가할 것임
 - 이 과정에서 각종 국내정책을 조심스럽고 천천히 마련하기보다는 다소 성급하고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 보임
- 특히 트럼프 지지자들의 조급함을 해소하고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행정권력 차원에서 즉각 실행 가능한 조치들을 우선 시행한 다음, 의회와 협력해 입법·예산지원 등 추가조치를 모색할 것임
 - 우선적으로 중산층 대상 감세조치를 적극 추진하고, 그 다음으로 불법 이민 차단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높음

1) 이 보고서는 세종연구소가 “미 대선 평가와 한미관계” 題下 제11차 세종정책포럼(11.10)의 전문가 간담회 토의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정책브리핑」에서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임

2. 트럼프와 공화당의 당·정 관계

- 트럼프와 공화당 지도부 간에는 비교적 원만한 당·정 관계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
 - 첫째,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을 동시에 석권하여 행정부-의회 양극화 및 간섭 현상이 사실상 사라지게 됨
 - 둘째, 트럼프의 정책공약과 공화당의 정강정책은 큰 틀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음
 - 셋째, 펜스부통령이 공화당 주류 출신으로서 당·정 관계를 원만히 조율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트럼프와 공화당은 일부 정치적 노선 및 정책기조 측면에서 마찰을 빚거나 조정 필요성이 나타날 여지가 있음
 - 감세정책과 같은 주요 국내 경제정책에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대외 경제정책 면에서는 트럼프의 보호주의적 무역·통상정책이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정책노선과 상충될 수 있음
 - 특히, 전통적으로 경제적 신자유주의와 국제분쟁에 군사적 개입을 지지하는 공화당 주류(mainstream)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경제적 '新고립주의(neo-isolationism)'와 외교·군사적 '非개입주의(non-interventionism)'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음

- 결국 향후 트럼프와 공화당의 당·정 관계가 어떻게 설정될지에 따라 정책적 주도권과 우선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우선, 트럼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관계 설정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이후 트럼프행정부의 핵심 요직에 얼마나 많은 공화당 인사가 참여하는가에 따라 정책조정의 수위가 정해질 것임
- 한편, 민주당에서 당내 상대적 중도진영을 대표했던 클린턴이 물러나고 진보세력 중심의 재결집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의 견제 차원에서도 공화당과 트럼프의 공조 강화가 예상

3. 사회적 갈등·분열의 심화 가능성

- 이번 선거로 공화·민주 양당간 이념적 간극이 훨씬 넓어지는 결과가 나타나 향후 미국내 사회적 갈등 및 분열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상
 - 정치권의 국민적 통합노력이 중대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
- 선거기간 중 인종성 차별 문제가 공개적으로 표출되며 형성된 사회적 반목과 증오가 극심, 상당기간 선거 후유증이 심각하게 남을 것임
 - 후보 자질 평가기준에서 정치적 올바름(PC) 여부가 크게 퇴조

- ‘지성주의’와는 거리가 먼 선거결과에 따라 미국사회에서 소위 ‘정신적 공백’ 현상이 발생하였고, 큰 자부심으로 남아 있던 ‘미국식 예외주의 (American Exeptionalism)’가 붕괴될 조짐을 보일 것으로 예상

[정리: 정낙근 수석연구위원 ☎ 02-2070-3319]